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간에 관계*

박영주[†]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정해경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대입수험생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학교성적과 경제상태, 학교만족도, 기출 및 자살충동, 음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입수험생은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지향적 대처를 통해 적응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와 정서적·신체적 요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서지향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받는 경우 가정적 요인의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를 받는 경우 신체적 요인의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대입수험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교성적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에 대한 가정과 주변의 기대가 더욱 과중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가정과 주변으로부터의 지지가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대입 수험생,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대학 진학을 통해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Selye (1976)가 스트레스 개념을 정리한 이래로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 본 연구는 2002년 우석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영주, (565-701) 전북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E-mail: yjbark@woosuk.ac.kr

결과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김교현, 전점구, 1997; 김득란, 1998; 장현갑, 1998; Gentry & Kobasa, 1984).

모든 연령층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층에서도 특히 우리 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의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후반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성장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신체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 내적 충동의 질적·양적 변화,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과다한 주위의 기대, 역할수행의 변화 등은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겪는 가치관의 혼란과 더불어 대학진학이라는 주된 당면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희, 권혜진, 염순교, 1997; 문성원, 한종철, 1996; 원호택, 이민규, 1987).

우리 나라의 입시스트레스는 “조기유학”이나 “해외이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폭력, 음주, 기출, 학교중퇴, 자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입시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높

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예방이다. 즉,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키워주거나 문제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입시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입시 스트레스를 빼고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논할 수 없듯이,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피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사실, 경쟁지향적인 사회환경에서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들마다 다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방식 또한 다르다. 스트레스원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나 지각은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중재하는 변인들로 통제소재, 자존감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환경자원인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 및 평가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강성희, 1992; 김연숙, 1991; Cohen & Wills, 1985; Kessler, Price & Wortman, 1985),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물질 등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다면 이는 입시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최대 스트레스원인 입시불안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가정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자존감을 고양해

주고, 입시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입시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입 수험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된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들은 Selye(1976)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을 정리한 이래로 스트레스 사건과 개인의 적응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Lazarus와 Launier(1979)의 관계론적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관계론적 입장에서 스트레스 평가 정도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한 개인의 스트레스 평가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대처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개인의 능력, 자존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김정희, 1991), 특히 사회적 지지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적응을 도와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이해하

기 위해서 이 관점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진로선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청소년이 자신에게 부과된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며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숙에 따라 사회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대인 관계 및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우면서 미래의 인생관, 직업관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Pfefferbaum, 1986). 따라서 청소년기는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인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대학진학 문제가 가중되어 시험, 학교와 가족의 과잉기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미래에 대한 좌절감 등이 심각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길홍(1985)에 따르면 입시스트레스란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서 진로선택의 갈등, 시험불안, 대학진학실패에 대한 예기불안 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부분이 겪게 되는 발달과업이다. 대학입시와 무관하지 않은 고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성적과 시험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명희, 1989), 원호택과 이민규(1987) 연구에서도 고교생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으로 공부문제(27.2%), 대인관계(21.2%), 가정문제(19.2%) 순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는 스트레스 영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진로와

연관된 학업성취는 남, 여학생 모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다(이명희, 1989).

이러한 입시스트레스는 진학을 결정한 학생이나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두통, 피로, 현기증, 식욕부진 등의 신체증상과 불안, 우울, 절망감 등의 정서장애를 수반한 심리적 증상들을 일으킨다(이길홍, 1985; 백명기, 1987; 신광길, 1991). 또한 박재선(1993) 연구는 11년 동안 청소년 정신장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자 수험생 중에서 78.6%가 입시스트레스로 입원한 환자로 밝혀져 입시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 자체에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이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대처일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격변인과 상황적인 변인들이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와(김교현, 전경구, 1997; Laux & Vossel, 1982; Towebes, Cohen & Glyshaw, 1989),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환경적 변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요인으로 알려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안귀여루, 1988; Cohen & Wills, 1985; Vaux, 1988).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에 성격변인과 상황변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가족과 주변환경의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교생의 입시스트레스 대처에 개입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중요

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보살핌, 존경, 애정 등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해주는 정보로 정의된다(Cobb, 1976; Norbeck, Lindsey & Carrieri, 1982; House & Kahn, 1985).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측면의 심리적 안녕과 환경적응에 관련된 변인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안귀여루, 1988; Cohen & Wills, 1985; Quamma & Greenberg, 1994; Vaux, 1988). 특히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각된 지지정도를 개인이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어(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Waltz, Poppe, 1991) 사회적 지지가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Cobb, 1976; Norbeck, Lindsey & Carrieri, 1982; House & Kahn, 1985). Thoit(1982)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 정보 및 지식 등의 인지적 지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력 등의 실질적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aefer, Coyne과 Lazarus(1981)는 감정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로, House와 Kahn(1985)은 감정적, 평가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로, 박지원(1985)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는 공감, 배려, 사랑, 수용 등과 관련된 지지를 지칭하며, 정보적 지지란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와

관련된 지지를 의미한다. 도구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지를 의미하고, 평가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Weiss(1974)와 Cobb(1976)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된 이래로 사회적 지지는 낮은 수준의 우울증,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으며(Barrera & Baca, 1990; Hobfoll & Lerman, 1988; Garland & Zigler, 1994, Pretorius, 1994), 스트레스 대처(Eckenrode, 1983), 높은 자아존중감(Belle, Dill & Burr, 1991) 및 타인과의 높은 친밀감(Hobfoll & Lerman, 1988)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지각,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신체적 건강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성희, 1992; 김연숙, 1991; 김정희, 1987; Dubow, Tisak, Causey, Hryshko, Reid, 1991). 그리고 실제로 제공된 지지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에 더 효과적이며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건강유지에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이 다(강성희, 1992; 김정희, 1987; Cohen & Wills, 1985; Sarason, Pierce, Shearin, Waltz, Poppe, 1991). 이는 청소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지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각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연숙(1991)의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구체적으로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의 지각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과 주변환경의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강성희(1992)의 연구는 가족지지와 학교성적, 문제행동 등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 중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지 등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 Youniss, 1982; Deroiser & Kupers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92).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성장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욕구 등의 증가로 부모에 대한 의존욕구가 감소하면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정, 1993).

청소년기에 이르면 친구관계는 본격적인 대인관계의 시발점이 되는데 또래들의 지지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와는 또 다른 지지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래들의 지지는 도구적이기보다는 사회, 정서적인 지지로서 동료애, 소속감 등에 영향을 주며, 또한 부모보다 더 많은 동료애, 친밀감, 애정 등을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Hays, 1988; Hunter & Youniss, 1982; Kon & Losenkov, 1978).

청소년들의 제 2의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다. 부모 다음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지적 성숙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입시체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원으로 지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강성희, 1992; Hunter & Youniss, 1982).

선행연구 결과들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해 주는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따른 대응행동을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이길홍, 1985; 백명기, 1987; 신광길,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탐구를 위해 대입수험생의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을 살펴보고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가 및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통해 대입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입시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함이다.

방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 하

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며, 연구대상 학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이다.

연구대상자수는 총 200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7부를 제외한 193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남학생이 86명(44.6%), 여학생이 107명(55.4%)을 차지하였으며, 학교성적은 상위권이 15명(7.8%)이고, 조사대상자의 약 76%정도인 147명이 중위권 수준이었다. 흡연과 음주 경험여부에 있어서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0.2%, 41.4%를 차지하였으며, 기출충동을 느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36.3%이고, 자살 충동을 느껴 본 경험은 3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141명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73.1%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스트레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 이민규(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으며 학교 요인과 대인·이성적 요인, 가정적 요인,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의 5개 하부영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받는다(5점)에서 전혀 받지 않는다(1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대처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능동적 조절행위로써, 본 연구에서는 Lazarus & Folkman(1984)의 Ways of Coping Checklist(Revised)를 번역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제지향적 대처 8문항과 정서지향적 대처 10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대처행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사회적 지지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일컫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를 앞 둔 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이영자(1994)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지지 7문항과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4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1년 10월 5일까지였으며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하에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세 집단 이상으로 구성된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정방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결 과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지지 정도

대입수험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 정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입 수험생이 인지한 스트레스는 155점 만점에 최소 41점에서 최고 127점으로 평균 66.68점(표준편차 12.85)이었으며, 대처에 있어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의 경우 40점 만점에 최소 8점에서 최고 37점으로 평균 24.18점(표준편차 5.14)이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는 50점 만점에 최소 14점에서 최고 46점으로 평균 32.37점(표준편차 5.60)이었다. 또한 사회적 지

지는 125점 만점에 최소 27점에서 최고 111점으로 평균 94.98점(표준편차 18.15)으로 나타났다.

표 1.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지지 정도

	범 위	평 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41 ~ 127	66.68	12.85
문제지향적 대처	8 ~ 37	24.18	5.14
정서지향적 대처	14 ~ 46	32.37	5.60
사회적 지지	27 ~ 111	94.98	18.15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성적($F = 5.827, p < .01$)과 경제상태($F = 7.408, p < .01$), 학교만족도($F = 10.952, p < .001$), 가출충동($t = -3.230, p < .01$), 자살충동($t = -5.175, p < .001$), 음주($t = 3.119,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세 집단이상으로 구성된 변인에 대해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는데, 성적에 있어서는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로는 하류층인 경우가 중류층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가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역시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과 이성친구, 어머니 직업,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대처유형의 차이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대처유형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지향적 대처에 있어서는 이성친구($t = 2.206, p < .05$), 경제상태($F = 3.778,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의 경우도 이성친구($t = 1.997, p < .05$), 경제상태($F = 3.291,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중 세 집단이상으로 구성된 변인에 대해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는데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의 경우 상류층 학생이 중류층 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지향적 대처를 하고 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의 경우도 상류층 학생이 중류층 학생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간의 차이를 검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별($t = -2.387, p < .05$), 성적($F = 10.668, p < .001$)과 경제상태($F = 3.684, p < .05$), 학교만족도($F = 8.767, p < .001$), 자살충동($t = 2.984, p < .01$), 음주($t = 2.945,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성친구, 어머니 직업, 가출충동,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중 세 집

표 2.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 수	구 분	스트레스		Scheffe test
		mean(SD)	t or F	
성 별	남학생	67.81(16.65)	1.029	
	여학생	65.78(8.66)		
성 적	상위권(1)	70.53(16.91)	5.827**	3>2**
	중위권(2)	64.99(10.13)		
	하위권(3)	72.87(19.06)		
이성친구	있음	69.70(16.75)	1.046	
	없음	66.19(12.09)		
경제상태	상(1)	68.71(17.30)	7.408**	3>2**
	중(2)	65.45(11.01)		
	하(3)	78.20(20.27)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66.18(11.75)	1.037	
	시간제	71.67(8.14)		
	전일제	68.60(16.24)		
학교 만족도	매우 만족(1)	57.60(12.17)	10.952***	3>1**
	대체로 만족(2)	64.85(9.86)		4>1**
	대체로 불만족(3)	73.21(15.19)		3>2**
	매우 불만족(4)	81.56(8.08)		4>2**
가출충동	있음	71.24(17.44)	-3.230**	
	없음	64.09(8.32)		
자살충동	있음	74.75(16.92)	-5.175***	
	없음	62.95(8.16)		
흡 연	있음	67.50(17.50)	.702	
	없음	66.51(11.56)		
음 주	있음	71.20(19.21)	3.119*	
	없음	64.80(8.85)		

* $p<.05$, ** $p<.01$, *** $p<.001$

단이상으로 구성된 변인에 대해서는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는데 성적에 있어서는 상위권 학생이 중위권 학생보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상류층 학생이 하류층 학생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학교만족도의 경우

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체로 불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표 5에서는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간

표 3.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대처의 차이검증

변 수	구 분	문제지향적 대처		Scheffe test	정서지향적 대처		Scheffe test
		mean(SD)	t or F		mean(SD)	t or F	
성 별	남학생	24.64(5.53)	1.539		32.76(6.02)	1.219	
	여학생	23.49(4.44)			31.79(4.89)		
성 적	상위권	23.83(6.45)	.369		33.25(5.57)	.435	
	중위권	24.42(4.44)			32.36(5.26)		
	하위권	23.72(6.09)			31.94(6.49)		
이성친구	있음	25.79(5.52)	2.206*		33.95(6.11)	1.997*	
	없음	23.78(4.99)			31.95(5.42)		
경제상태	상(1)	26.39(5.74)	3.778*	1>2*	34.67(4.97)	3.291*	1>2*
	중(2)	23.67(4.98)			31.85(5.63)		
	하(3)	25.18(5.07)			33.09(5.25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4.30(5.22)	1.193		32.15(5.75)	.469	
	시간제	28.00(5.52)			34.60(3.91)		
	전일제	23.61(4.97)			32.74(5.47)		
학교 만족도	매우 만족	23.93(6.27)	.323		31.87(6.99)	.698	
	대체로 만족	24.41(4.87)			32.77(4.98)		
	대체로 불만족	23.57(5.03)			31.41(5.42)		
	매우 불만족	24.55(7.13)			32.64(9.89)		
가출충동	있음	24.37(5.28)	-595		32.31(5.76)	.164	
	없음	23.93(4.98)			32.44(5.43)		
자살충동	있음	24.47(5.48)	-716		32.76(5.55)	-893	
	없음	23.93(4.85)			32.04(5.65)		
흡 연	있음	24.57(5.91)	-608		32.38(6.41)	.038	
	없음	23.93(4.81)			32.44(5.33)		
음 주	있음	24.69(5.27)	-1.778		32.22(5.78)	.171	
	없음	23.31(5.09)			32.36(5.44)		

* $p < .05$, ** $p < .01$, *** $p < .001$

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각 하부영역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지향적 대처에 있어서는 학교요인($r = .183, p < .05$)과 가정요인($r = .165, p < .05$), 대인관계요인($cc = .245, p < .01$), 정서적 요인($r = .167, p < .05$), 신체적 요인

($r = .195, p < .05$)의 스트레스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에 있어서는 대인관계요인($r = .300, p < .01$), 정서적 요인($r = .276, p < .01$), 신체적 요인($r = .250, p < .01$)의 스트레스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검증

변 수	구 분	사회적 지지		Scheffe test
		mean(SD)	t or F	
성 별	남학생	91.37(22.31)	-2.387*	
	여학생	97.89(13.35)		
성 직	상위권(1)	97.73(19.09)	10.668***	1>3*
	중위권(2)	97.48(14.50)		2>3**
	하위권(3)	81.84(26.49)		
이성친구	있음	99.44(18.49)	1.380	
	없음	94.26(18.04)		
경제상태	상(1)	105.36(15.03)	3.684*	1>3*
	중(2)	94.79(17.54)		
	하(3)	87.47(23.59)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95.57(15.90)	.280	
	시간제	92.33(17.90)		
	전일제	93.26(24.77)		
학교 만족도	매우 만족(1)	90.50(30.48)	8.767***	2>3**
	대체로 만족(2)	98.72(12.14)		
	대체로 불만족(3)	83.00(25.03)		
	매우 불만족(4)	85.44(28.38)		
기출충동	있음	92.07(21.26)	1.565	
	없음	96.64(15.97)		
자살충동	있음	88.21(24.24)	2.984**	
	없음	98.11(13.50)		
흡 연	있음	92.08(21.10)	.707	
	없음	95.77(17.39)		
음 주	있음	91.56(23.25)	2.945*	
	없음	97.80(14.19)		

*p<.05, **p<.01, ***p<.001

표 5.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상관관계

		대 처	
		문제지향적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학교 요인	.183*	.132
	가정 요인	.165*	.115
	대인관계요인	.245**	.300**
	정서적 요인	.167*	.276**
	신체적 요인	.195**	.250**
전 체		$r = .315^{**}$	

* $p < .05$, ** $p < .01$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표 6에서는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가정요인의 스트레스의 경우 정서적 지지($r = -.292, p < .01$), 평가적 지지($r = -.268, p < .01$), 정보적 지지($r = -.225, p < .01$)가 각각 부

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요인의 스트레스의 경우 정서적지지($r = -.207, p < .01$), 평가적 지지($r = -.169, p < .05$), 물질적 지지($r = -.166, p < .05$)가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입수험생의 대처와 사회적 지지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대처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각 하부영역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지향적 대처의 경우 정서적 지지($r = .302, p < .01$), 평가적지지($r = .345, p < .01$), 정보적 지지($r = .340, p < .01$), 물질적 지지($r = .171, p < .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의 경우 정서적 지지($r = .368, p < .01$), 평가적 지지($r = .344, p < .01$), 정보적 지지($r = .349, p < .01$), 물질적 지지($r = .249, p < .01$)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6.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스트레스	학교 요인	.013	.102	.049	.097
	가정 요인	-.292**	-.268**	-.225**	-.169
	대인관계요인	-.032	-.020	.016	.011
	정서적 요인	-.073	-.049	-.026	-.006
	신체적 요인	-.207**	-.169*	-.137	-.166*
전 체		$r = -.098$			

* $p < .05$, ** $p < .01$

표 7. 대처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대 처	문제지향적	.302**	.345**	.340**	.171*
	정서지향적	.368**	.344**	.349**	.249**
전 체		$r = .121^*$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86명과 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양상과 대처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입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학교성적, 경제상태, 학교만족도에 따라 달랐는데, 이는 고 3 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성취나 성적이 가장 과중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경희, 권혜진, 염순교, 1997; 원호택, 이민규, 1987; 이명희, 1989). 또한 이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기출충동과 자살충동, 음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된 스트레스원이라기 보다는 청소년기의 특성 및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 모두에서 이성친구의 여부와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지향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중에서도 대인관계나 정서

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서지향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를 통한 사회로의 진출은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로서 “현실상태”를 수용하는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대학입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하고 있는 대인관계와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도 대학입시라는 문제상황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대처라고 본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원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Lazarus & Folkman, 1984).

대입수험생들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가정요인의 스트레스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신체적 스트레스 역시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평가, 물질적인 면에서의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바이다.

이렇듯 대학진학 또는 그 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로의 진출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은 발달과정에서 만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각 영역에 있어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 사회적 지지임을 시사하고 있다(안귀여루, 1988; 최은정, 1998; Cohen & Wills, 1985; Vaux, 1988).

대입 수험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이 가정환경 및 신체적 스트레스와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네 가지 하위차원을 통해 살펴 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공감, 배려, 사랑 등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와 조사 대상자 자신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적 지지가 가정환경과 신체적 스트레스와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대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적 지지는 가정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물질적 지지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학교 성적, 가정경제 상태,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의 기대,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고등학교 3학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사회적 지지는 문제중심적이든 정서중심적이든 스트레스 대처와 밀접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해 준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강성희, 1992; 김연숙, 1991; 김정희, 1987; Dubow, Tisak, Causey, Hryshko, Reid, 1991).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제반 스트레스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전략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청소년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입시 스트레스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입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개인차원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장 주요한 스트레스원은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학교생활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지지는 가정과 학교차원의 관리가 스트레스 대처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한 어려운 시기에 가중된 대학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처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 심리적인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고3 수험생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거한 횡단적인 결과이

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나타난 대입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에 관계는 향후 고등학교 전 학년을 통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시스트레스 유형과 대처 및 사회적 지지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분석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분석대상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만 표집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표집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남녀로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2).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의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교현, 전점구(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득란(1998). 스트레스와 바이러스 감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49-78.**
- 김연숙(1991). 일 도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 권혜진, 염순교(1997). 청소년의 소진 경험에 대한 연구-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241-257.**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1991). **스트레스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원문화사.
- 문성원, 한종철(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7(2), 233-246.**
- 박재선(1993). 입원한 입시병 청소년의 임상양상 분석. **중앙의대지, 18(1), 105-134.**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명기(1987). 대입스트레스증후군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광길(1991). 입원한 입시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의 임상양상에 관한 정신의학적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 청구논문.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43-50.
- 이길홍(1985).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정신건강. *오늘의 청소년*, 9, 30-33.
- 이명희(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현갑(1998). 관상성 심장병 발생에 있어서 심리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3(1), 1-17.
- 최은정(1998). 대입 수험생의 스트레스 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rera, M., & Baca, L. (1990). Recipient reactions to social support: Contributions of enacted support, conflict support and network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541-551.
- Belle, D., Dill, D., & Burr, R. (1991). Children's network orient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362-37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roiser, M. E., & Kuppensmidt, J. B.(1991). Costarican children's percept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 Psychology*, 27(4), 656-662.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Eckenrode, H. (1983).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509-528.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rland, A., & Zigler, E. (199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586-593.
- Gentry, W. D., & Kobasa, S. C. (1984).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mediating stress-illness relationships in humans. In W. K. Gentry(Ed.),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pp. 97-116)*, New York: Guilford Press.
- Hays, R. B. (1988). Friendship, In S. Duck(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Y.: John Wiley & Sons.
- Hobfoll, S. E., & Lerman, M. (1988). Personal

- Relationships, personal attitudes, and stress resistance :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565-589.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 Academic Press.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6), 806-811.
- Kessler, R. C., & Price, R. C., Wortman,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merican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1.
- Kon, I. S., & Losenkov, V. A. (1978). Friendship in adolescence: value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143-155.
- Laux, L., & Vossel, G. (1982). Paradigms in stress research : Laboratory versus field and trait versus proc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03-211, New York : Guilford Press.
- Lazarus, R., & Launier, R. (1979).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237-328, New York: Plenum.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Norbeck, J. S., A. M. Lindsey, A. M., & Carrieri, V. A. (1982). Further development of the 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 Normative Data and Validity Testing. *Nursing Research*, 32(1), 4-9.
- Pfefferbaum, B. (1986). Adolescence and Illness. *Annual Review*, 5,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Pretorius, B. (1994). Willingness to use social support : Use of the network orientation scale with black south African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 1011-1017.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287.
- Schaefer, C.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 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 Medicine*, 4, 381-406.
-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 Thoit,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 consider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 Towbes, L. C., Cohen, L. H., & Glyshaw, K. (1989). Instrumentality as a life-stress moderator for early versus middle adolesc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9-119.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원고 접수일: 2002. 3. 4
수정원고 접수일: 2002. 4. 9
게재 결정일: 2002. 4. 13

K C I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Ways to Cope,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Entrance Examinees

Young-Joo Bark

Dep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Hae-Kyung Chung

Dep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entrance examinees. The research found that stress recognized by the college entrance examinees was different depending upon school grades, financial status, satisfaction in schools, suicide and runaway impulse, along with the drinking. Most of the stresses are coped with a problem-oriented coping. The human-relationship and the emotional stresses were coped with using emotion-oriented coping. When receiving emotional, evaluation, and information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stress and social support, it is indicated that the family factor of stresses are experienced as to be low. When receiving emotional, materialistic, and evaluation support, it is indicated that the physical factor of stress is also low.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 the stresses that college entrance examinees experience are not because of school grades, but the pressures from the expectations of their families and friends as for their advancement in society. This functions as the heavier element for their stresses, and at the same time the support from the others is confirmed to be the essential factors in positively dealing with the stress.

Key Words : College Entrance Examinees, Stress, Coping, Social Support